

Korean Painting

한국화 클래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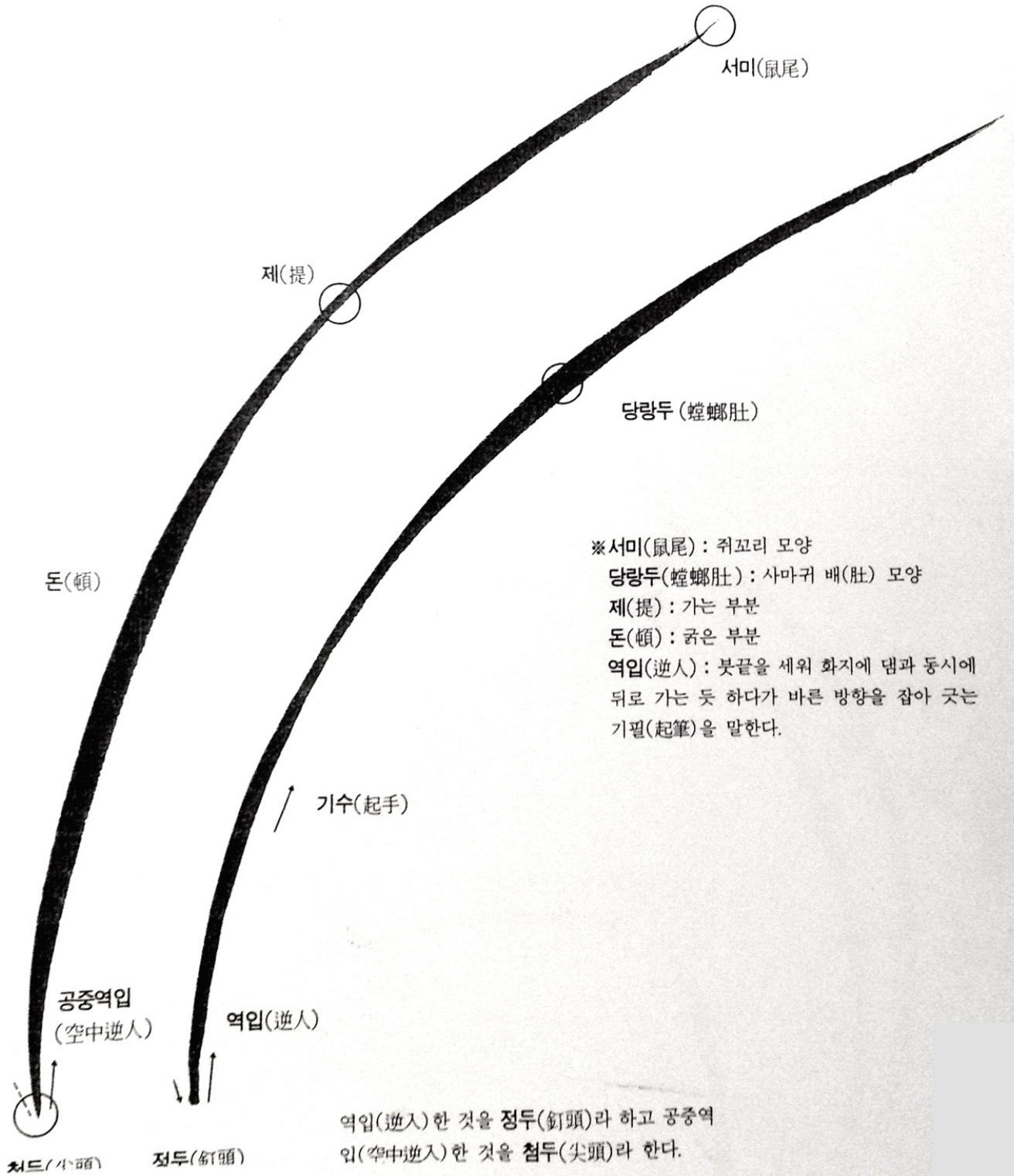
Instructor 강사: Young Ja Park 박영자
Time: Every Monday 1:30pm~2:30pm

1. 난잎(蘭葉) 그리는 법

(1) 일엽(一葉) 운필법(첫째 잎 그리는 법)

① 난잎은 먼저 일필기수(一筆起手) 부터 그리는데 편안한 마음과 몸의 균형을 잡은 후, 붓이 종이에 닿을 때 가볍게 역입(逆入) - 붓끝을 세워 화선지에 댄과 동시에 밑으로 긋는 듯 하다가 위로 긋는 것 - 을 해서 붓이 나가는 방향으로 비스듬히 하면서 나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어 올라간다.

② 이때 넓게 보이는 정면을 당랑두(螳螂肚) - 사마귀 배모양 - 라 하고 잎의 중간쯤에서 붓을 약간 들어 가늘게 하는 것을 제(提)라 하며 이때의 표현은 측면을 나타낸 것이고 다시 약간 힘을 주어 굵게 그리는 것을 돈(頓)이라 하며 이때의 표현은 잎의 정면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붓을 가볍게 해서 서미(鼠尾) - 쥐꼬리 모양 - 와 같이 가볍게 붓을 들어준다.



※서미(鼠尾) : 쥐꼬리 모양
 당랑두(螳螂肚) : 사마귀 배(肚) 모양
 제(提) : 가는 부분
 돈(頓) : 굵은 부분
 역입(逆入) : 붓끝을 세워 화지에 댄과 동시에 뒤로 가는 듯 하다가 바른 방향을 잡아 긋는 기필(起筆)을 말한다.

역입(逆入) 한 것을 정두(釘頭)라 하고 공중역입(空中逆入) 한 것을 첨두(尖頭)라 한다.

기본/삼필(삼엽) 구성의 예



삼필

일필

이필



(5) 단엽(斷葉) · 단엽(短葉) · 엽포(葉苞)

① 단엽(斷葉; 끊어진 잎)의 운필법

끊어진 잎은 건필(乾筆)과 둔필(鈍筆)로 새로운 잎은 윤필(潤筆)과 예필(銳筆)로 그려야 하며 많이 그려서는 안 된다. 이것은 포기의 뻣뻣한 잎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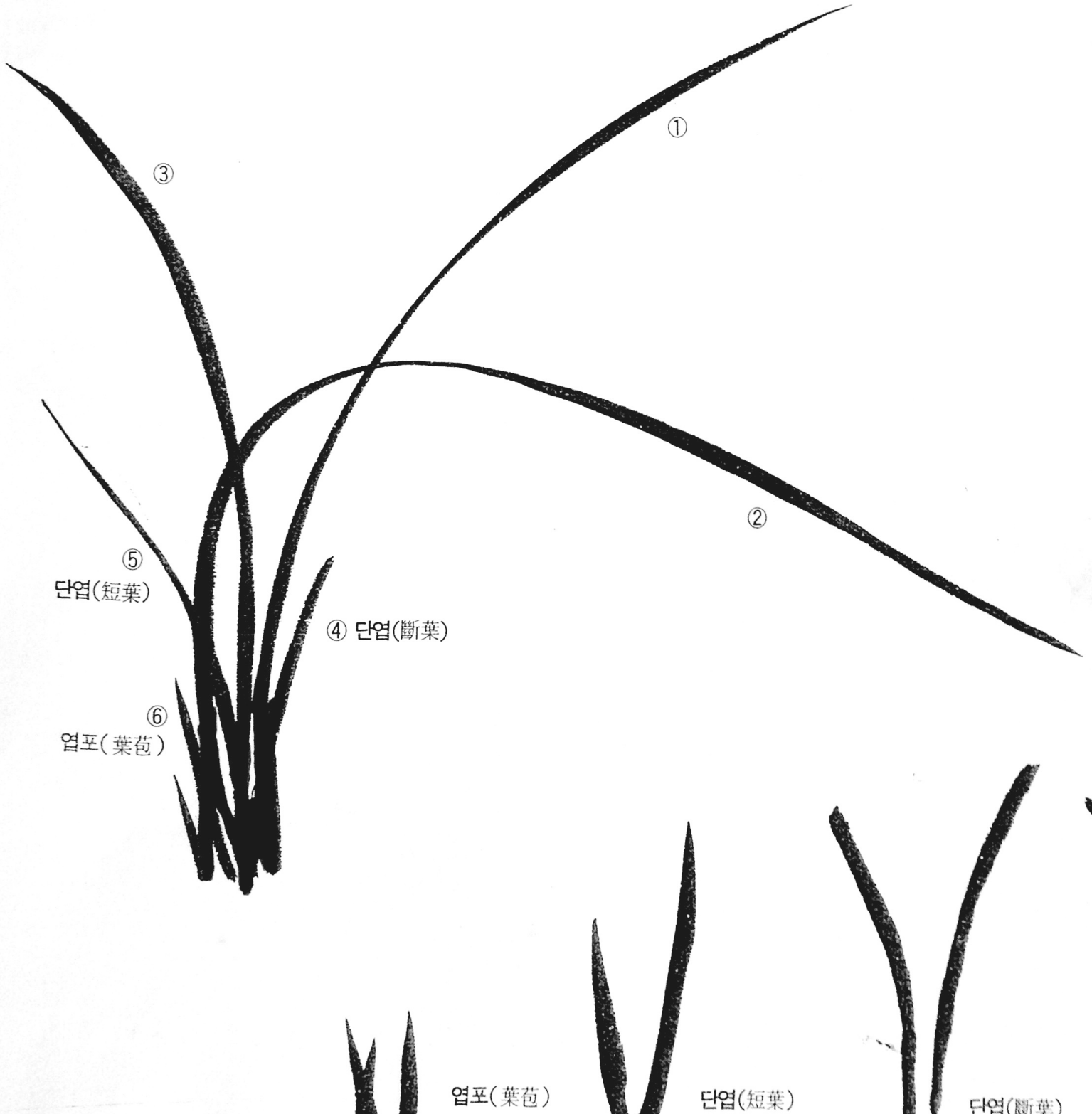
② 단엽(短葉; 짧은 잎)의 운필법

짧은 잎은 뿌리 근처에 있는 것으로 새로 나온 잎이다. 이 잎은 한 포기의 난을 그릴 때 난을 감싸듯이 그려야 하고 난의 구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니 많이 그려서

번잡하게 하거나 간격이 넓어 듬성듬성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③ 엽포(葉苞)의 운필법

엽포는 뿌리 가까이에 위치한 작은 잎을 말하며 난 포기마다 있다. 이것을 그리는데는 잎을 그릴 때와는 달리 위에서 붓을 가볍게 대는 순간 아래의 뿌리쪽으로 강하게 굽는다. 그 모양의 끝은 가늘고 밑부분은 굵고 뭉뚝하게 한다.





8
9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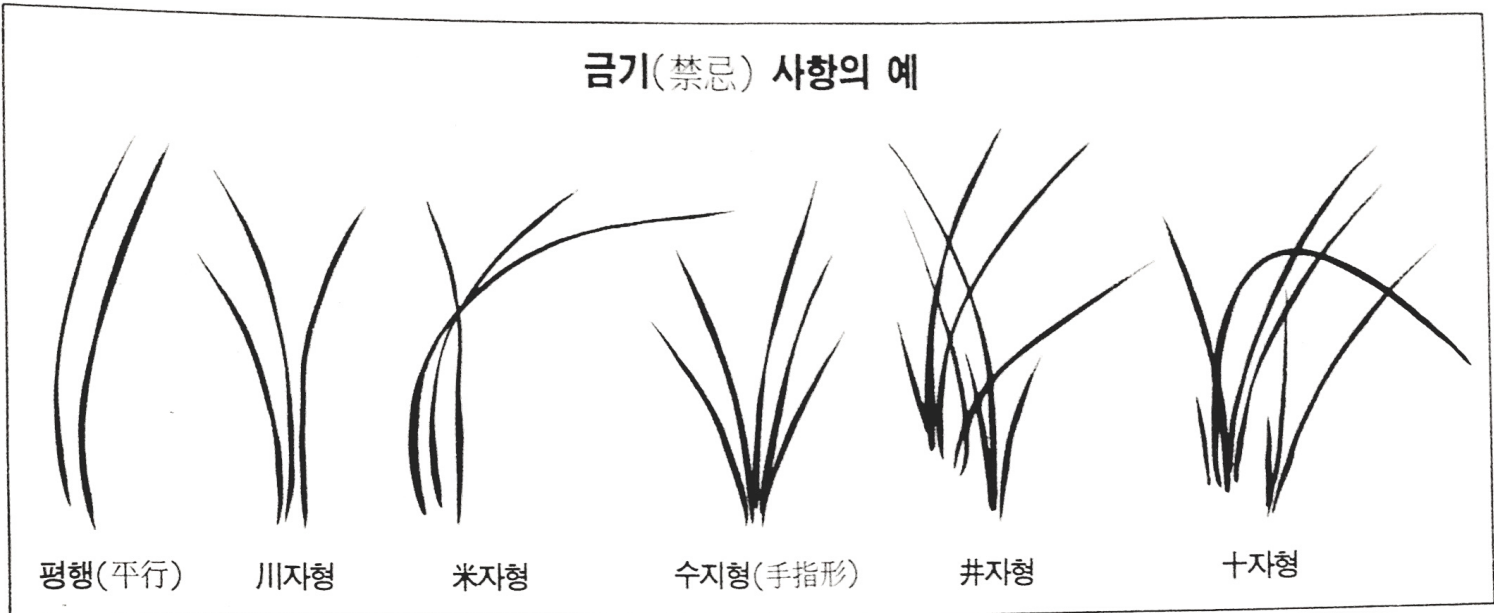
벼랑에서 드리워진 잎



(8) 잎(葉)의 금기(禁忌)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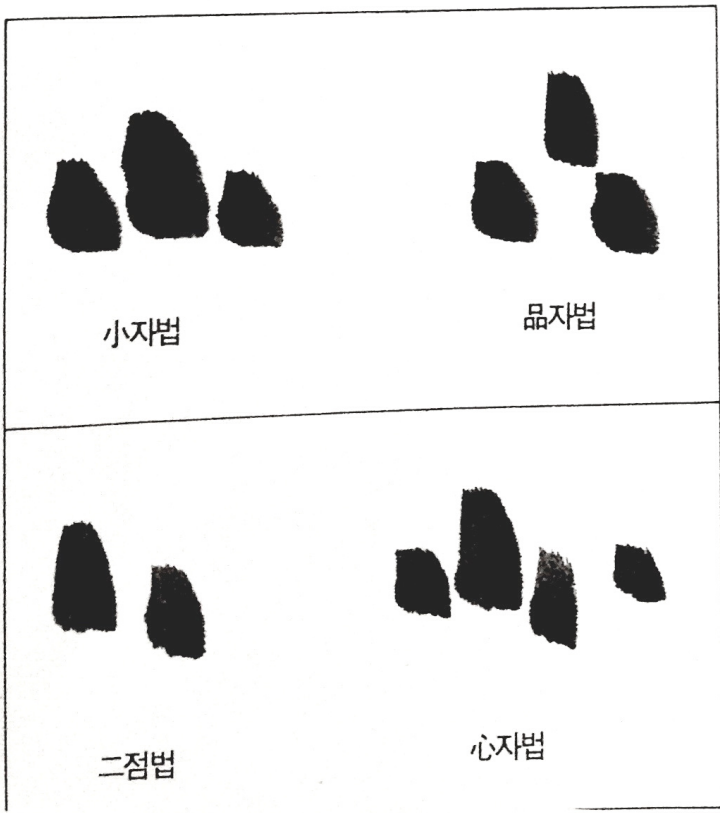
- ① 세 잎이 같은 곳에 교차하는 “米”자형인 것.
- ② 다섯 손가락을 편 수지형(手指形)인 것.
- ③ 세 잎이 “川”자형인 것.
- ④ 네 잎이 “井”자형인 것.
- ⑤ 두 잎이 평행(平行)인 것.
- ⑥ 두 잎이 “十”자로 교차된 것.

금기(禁忌) 사항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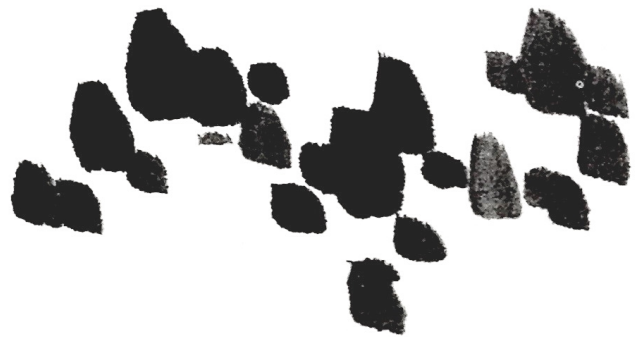


(9) 땅(土) 그리는 법

먼저 붓에 담묵을 찍고 붓끝에 농묵을 찍은 뒤, 난이 모아져 있는 부분부터 찍어 나가는데 점의 크기와 간격을 변화 있게 찍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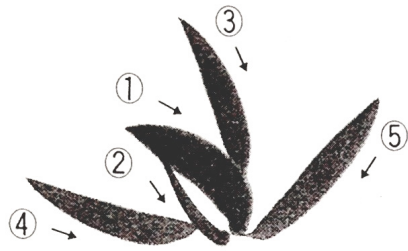
땅(土) 표현의 예



하며, 함방(含放)은 꽃봉오리와 활짝 핀 꽃의 상태를 말한다.

② 꽃을 그릴 때 우선 꽃잎 하나 하나를 따로 떼어서 연습하는 것이 좋고 위에서 아래로, 아래서 위로,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자유자재로 여러 방향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 꽃의 모양은 직선과 곡선의 중간 정도 되는 호(弧)를 그리는 기분으로 끌어 붓끝을 천천히 들어 준다.



꽃이 한 지점에 모여야 함.



꽃의 기본 연습



꽃잎 그리는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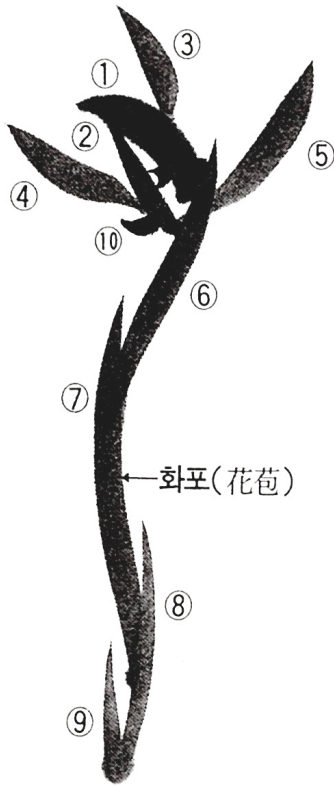


(3) 꽃대(花莖)와 화포(花苞) 그리는 법

꽃대(花莖)와 화포(花苞)는 어느 난꽃에도 있지만 춘란(春蘭)과 혜란(蕙蘭)을 볼 것 같으면 꽃대(花莖)와 화포(花苞)를 그리는 형식이 다르다.

① 춘란(春蘭)은 유곡(幽谷)에서 핀다 하여 유란(幽蘭)이라고도 하며, 한 줄기에 한 송이(一莖一花)가 달린다 해서 독두란(獨頭蘭)이라고도 불리우는데 한 줄기에 두 송이(一莖二花)가 피기도 한다.

② 화포(花苞)는 꽃대를 감싸듯이 그리되 좌우양필로 그리는데, 그 모양은 짧고 윤택하게 위에서 아래로 꽃잎 그리듯이 곡선(弧)으로 3~4층 연결하여 그린다. 또한 꽃대와 꽃자루(花柄)를 생략하고 화포(花苞)만을 그리는데 그 이유는 화포(花苞)가 꽃대와 꽃자루(花柄)를 감싸고 있기 때문이다.



정면초개(正面初開)



좌향(左向)



우향(右向)



정면향(正面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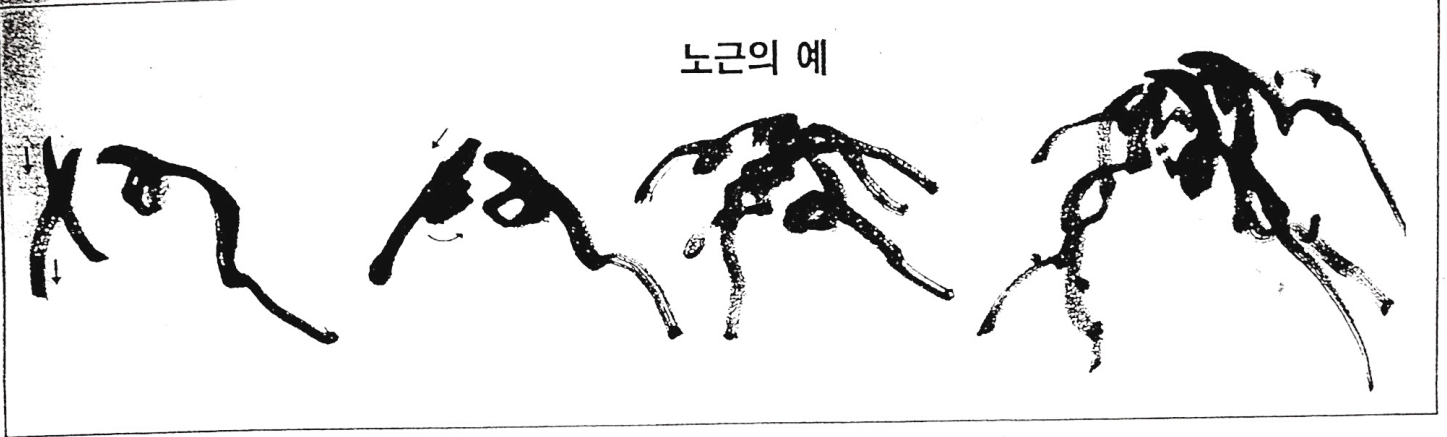
이경이취(一莖一花)

① 단에는 뿌리를 그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노근란(露根蘭)이라고 부른다. 노근란을 처음으로 그린 이는 송(宋)의 유신(遺臣)이었던 정사초(鄭思肖)이다. 송(宋)나라가 망하고 원(元)나라가 세워지자 세상을 괴리고 「원(元)의 곡식을 먹지 않겠다」는 뜻으로 흙이 없고 뿌리를 들어 낸 난을 그렸다고 한다.

② 단에는 그릴 때 단의 밑부분에서 여러 갈래로 나가는 뿌리를 천천히 움직여 여러 갈래를 만든다. 난 뿌리에는 가지가 없어 파뿌리 모양으로 한 지점에서 여러 갈래로 뿔어서 나와 있다.

뿌리를 언뜻 보면 가지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뿌리가 굽어져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염두하며 그려야 한다.

노근의 예



노근란(露根蘭)의 예



③ 꽃봉오리는 이필(二筆)로 또는 단필(單筆)로 찍어 그리기도 하는데 이필로 그릴 경우 바깥쪽 잎은 길고 굽게 안쪽 잎은 짧고 가늘게 마무리 한다.

④ 조금 핀 꽃은 봉오리에 양옆으로 적당한 위치에 한 장 또는 두 장의 꽃잎을 그리는데 점점 피어가는 예가 된다. 이 때의 중요한 점은 꽃잎의 아래 끝 부분이 한 지점에 모여야 한다.



(2) 꽃술 그리는 법

① 난꽃에 꽃술을 그려 넣는 데 이것을 점심법(點心法)이라 한다.

꽃술은 농묵(濃墨)으로 점을 찍듯 “山, 小, 心”자의 초서체와 비슷하게 그려 넣고 이 점(點)에 의하여 강한 생동감을 들게 한다.

② 꽃술은 마음의 눈이라 하여 심점(心點)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마치 사람의 정신은 그 눈(眼睛)에 나타나듯이 꽃 역시, 그 정신은 점심(點心)에 나타난다고 생각하여 극히 간단한 몇 개의 점이면서도 신경을 써서 표현해야 한다.

③ 점심(點心)은 3점정격(三點正格) - 3점(三點)을 사용하는 것을 정식(正式)으로 한다. - 이나 3점4점격(三點四點格), 4점변격(四點變格) - 4점(四點)을 가지고 점심(點心)을 그리는 것은 변격(變格)이다. - 이 있

점심법(點心法)

